



Japan

오사카지사

먹고 뿌리고 마시는 일본의 꽃 트렌드

먹는 꽃다발, 샐러드 부케

도쿄 롯폰기 레스토랑 가스톤&가스파(Gaston & Gaspar)의 코스요리 중 샐러드 부케가 화제로 떠올랐다. 다양한 색깔의 식용 꽃을 채소로 감싸 만드는 샐러드 부케는 먹기 아까울 정도의 뛰어난 비주얼을 자랑한다. 시기에 따라 식용 꽃 종류는 달라지며, 겨울인 지금은 동남아시아산 덴드로븀 팔레놉시스(Dendrobium phalaenopsis)와 매리골드, 술 패랭이꽃 등 약 10종류를 사용한다. 부케에 쓰이는 꽃 종류는 레스토랑이 정하지만, 앞으로는 꽃도 손님이 고를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샐러드 부케가 담긴 그릇에 메시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생일 등 축하할 일이 있을 때의 재방문 의사를 나타내는 고객도 적지 않다. 여성들끼리 어울려 음식과 대화를 즐기는 조시카이(女子会) 때도 분위기를 띄우기 좋다는 평이다. SNS에서는 '진짜 꽃다발인 줄 알았다', '먹으면 예뻐질 것 같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샐러드 부케는 큐피, 야마기, S&B식품 등 일본 식품회사의 샐러드와 드레싱을 홍보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재해지 복구에서 시작된 코스모스 드레싱

드레싱의 색깔을 내는 데에도 꽃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 여행지로도 많이 알려진 규슈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朝倉市)의 여성 농가들은 2017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사쿠라시 농지 약 2ha에 코스모스를 심고, 코스모스 꽃잎에 양파, 조미료, 식물 오일, 곡물 식초를 넣어 드레싱을 만들어냈다. 코스모스의 화사한 분홍빛이 샐러드·샤브샤브·파스타 등 여러 요리와도 조화를 이루고, 재해지 복구의 의미도 담아 소비자의 공감력을 자극하는 코스모스 드레싱은 인터넷숍, 관광협회 등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은 200ml 1병에 750엔으로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해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 코스모스 꽃잎 활용 드레싱 |



마시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꽃술

일본 아이치현에 위치한 호코엔주조는 보틀 안에 꽃과 술을 넣은 '인테리어 리큐어'를 판매하고 있다. 언뜻 프리저브드 플라워 보틀로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비주얼을 자랑하는 꽃술은, 마시기 전에 유리에 비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 인테리어 리큐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꽃술 재료로는 금잔화·국화·벚꽃이 사용되며, 비주얼 덕분에 선물용으로 찾는 고객도 많다.

| 인테리어 리큐어 |



꽃병으로 쓸 수 있는 비닐백 포장

집에 꽃병이 없다는 이유로 꽃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을 위해, 꽃병으로도 쓸 수 있는 비닐백에 꽃을 담아서 파는 가게가 있다. 비닐백이지만 모양이 잡혀 있어 쓰러지지 않고, 투명한 소재 덕에 꽃 본연의 아름다움을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비닐백은 테이블 위에 놓을 수도 있고, 연결된 끈을 이용해 벽과 현관문 등에도 걸 수 있으며, 재사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꽃 가게 측도 별도의 포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

화훼 트렌드는 내추럴 & 인스타감성

2019년 일본 화훼시장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내추럴 품종과 인스타 감성을 자극하는 컬러 및 형태가 트렌드였다. 이 트렌드는 일

본 대표 화훼 유통회사인 오타화훼가 1년간 유통한 20만 종 이상의 화훼 중 평가가 높은 품종과 생산자를 선발하는 '2019년도 플라워 오브 더 이어 OTA' 결과와도 통했다.

최우수상은 후쿠시마현의 단풍철쭉(ドウダンツツジ)이 그린소재로서는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 그루만 있어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며, 내추럴하면서도 시원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

우수상은 아쿠아 블루 컬러의 익시아가 수상했다. 핑크, 화이트, 옐로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익시아 품종 중에서 희소성이 높은 컬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작고 수많은 꽃봉오리의 뭉쳐 있는 모습이 쌀알처럼 보여 '라이스플라워'라 불리는 품종이 귀여운 개성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신상 품장려상을 수상한 오렌지 옐로우, 비타민 컬러의 장미 품종 '망고 리버'는 일본장미절화품평회 최고상인 농림수산 대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한 품종이기도 하다.

| '2019년도 플라워 오브 더 이어 OTA' 최우수상 후쿠시마현의 단풍철쭉(ドウダンツツジ) |



Key Point

일본의 대회 수상 품종 정보를 참조할 것

한국산 절화의 일본시장 수출 시, 인기 화훼 품종 선발대회인 '플라워 오브 더 이어 OTA' 등을 통해 업계 관계자의 구매 선호도가 높은 품종에 대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면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꽃·식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만들고자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꽃병으로도 쓸 수 있는 비닐백 등의 일본 아이템을 이런 이벤트에 사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출처: 니케이MJ, 食べる花束「ブーケサラダ」映え・人気満開, 일본농업신문, 母さんの頑張り反響 豪雨被災地の「花ドレ」人気 福岡県朝倉市の女性グループ, PR TIMES, 2019年のトレンドを反映する花決定 第15回フラワー・オブ・ザ・イヤ-OTAは福島県のグリーンが最優秀賞, www.kewpie.co.jp, www.sbfoods.co.jp, shopping.geocities.jp/hokoen-shuzo, www.aqua-bloom.com